

A 10x10 grid of 100 small images. The images are arranged in a grid that is mostly complete, with some cells missing or faded. The images depict a wide variety of subjects: flags (Sri Lankan, South Korean), industrial scenes (power lines, cranes, ships, factories), nature (sunset, kiwi fruit, strawberries), architecture (traditional Chinese roofs, modern buildings), and technology (satellite dishes). The images are small and square, creating a mosaic-like effect. The grid is organized into four main groups of four rows each, with the first group containing 16 images, the second 16, the third 16, and the fourth 16. The images are arranged in a way that suggests a progression or a collection of related themes, such as industry, nature, and human-made structures. The images are small and square, creating a mosaic-like effect. The grid is organized into four main groups of four rows each, with the first group containing 16 images, the second 16, the third 16, and the fourth 16. The images are arranged in a way that suggests a progression or a collection of related themes, such as industry, nature, and human-made structures.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Vice Presidency for Sectors and Knowledge

한국: 아시아-중남미 관계의 틀을 깨다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Vice Presidency for Sectors and Knowledge

목차

Acknowledgments/ v

서론/ 1

상호무역: 급성장하는 교역 관계/ 3

보다 균형적이고 다양한 관계를 지향하다/ 5

여전히 존재하는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논의/ 9

운송 비용/ 13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이니셔티브/ 15

무역과 투자가 함께하는 한국의 교역 형태/ 17

협력의 중요성/ 23

마무리 하며: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자/ 27

Acknowledgments

한 국: 아시아-중남미 관계의 틀을 깨다(*Korea: Breaking the mold of the Asia-Latin America relationship*) 는 미주개발은행 (IDB) 과 한국기획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주최하는 한국-중남미 무역투자 포럼 (2011년 10월 20-21일, 서울)을 위해 IDB의 Luis Alberto Moreno 총재의 위임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INT)에서 집필된 본 연구는, IDB의 Antoni Estevadeordal (INT Sector Manager)의 총감독 하에 Mauricio Mesquita Moreira (INT Research Coordinator)가 Cecilia Heuser (INT Research Fellow)와 공동집필 하였으며, Kyungjo An은 한국어 버전의 감수를, Cristóbal Vásquez는 출판 편집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 십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룬 중국은 중남미와 카리브 (LAC)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중국의 급부상은 중남미에서 기타 아시아 국가의 중요성이 다소 가리워 지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역과 투자기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시아 국가들이 중남미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의 경우, 천연 자원이 적은 환경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성장률 (1960년대 초반 이후 평균 7% 성장) 과 함께 1조 가량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5천9백만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살고 있다.

한국 시장성의 가치는 한국과 중남미 두 경제가 가지고 있는 보완적인 구조를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중남미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천연자원 및 원자재 분야에, 한국은 칠레에 비해 제조업 분야에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인다. 이미 노동집약이나 기본자본 집약적인 방식을 넘어서 더욱 향상된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은 중남미 산업과 비교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교역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인당 소득이 2만불 가량 되는 한국의 경제력은 중남미가 상호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다양하고 진보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FDI) 분야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FDI 순유출 규모는 총 1200 억 달러에 달하며, 2010 년에만 200억 달러 가량이 투자되었다. 이 중 중남미에 투자된 비율은 아직 크지 않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기존의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한국은 중남미 지역의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 결과적으로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

무역과 투자 이외에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한국의 정책 또한 중남미 국가에 있어서는 주목해야 할 분야이다. 한국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붕괴에 1인당 소득이 평균 개발 도상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불과 30년 만에 고등교육 인력과 세계적인 수준의 민간 분야를 기반으로 한 고도의 성장을 이루며 다양한 기술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경제 성장국가로 탈바꿈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렇듯 한국과 중남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회를 새로이 조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을 넘어서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의 중요성을 되짚고, 특히 한국과의 교류가 아시아-중남미 간의 지속가능한 교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양 지역간의 상호무역이 현재의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한-중남미 교역규모는 중남미 무역의

2.5%, 440억 달러에 불과함) 전통적·비전통적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렇게 양 지역간의 교역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투자와 협력을 가져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무역 기회를 창출해 낼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상호무역: 급성장하는 교역 관계

지난 20년간 한국과 중남미 간의 양자간 무역은 연 평균 16.1%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격히 확대되어왔다. 이는 중국(27.5%)을 제외한 기타 지역, 예를 들면 동아시아¹ (15.1%), 미국(9.8%), 유럽(7.4%), 일본(7.7%) 등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빠른 성장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목할만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총 무역량 중 대 중남미 무역 점유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1990년부터 한국의 대 중남미 무역 점유율은 1%에서 2.5% 가량씩 소폭씩 상승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동안 무려 13%나 성장하였다. 반면에 중남미의 대 한국 무역량은 한국 보다는 높은 편이며 (2010년 기준, 5.1%) 대 중국 무역량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표 1 참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남미 간의 무역 또한 자원의 상보성(相補性)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표2를 보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의 자원 보유량은 현저히 적으며 그 중 특히 한국의 자원보유량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다소 적은편이다. 그러나 현재 중남미와 아시아 간에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단순히 자원보유량 차이로 인한 보완적인 구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로 지금처럼 교역이 성장한 것은 중국과 중남미 간의 교역이 시작되고 2년 후에야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양 지역은 이미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반 서로에게 시장을 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자유롭지 않은 편이었다. 한국 또한 중남미 국가들과 무역특혜협정을 맺기도 하였지만(도표 2 참조) 이는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협상을 타결한 이후 협정의 발효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대신 중국의 급부상을 교역 활성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다. 중국의 영향으로 중남미 원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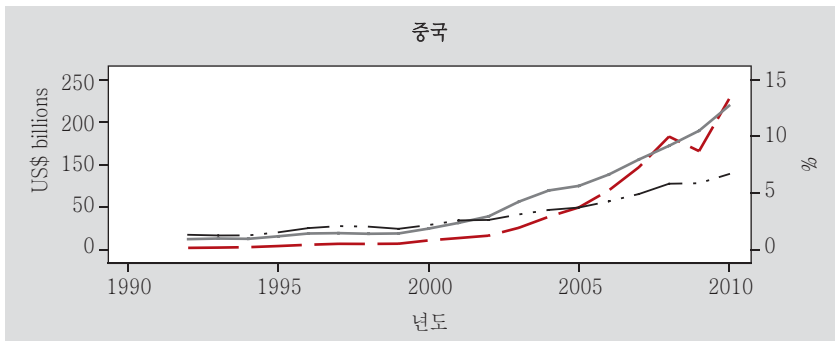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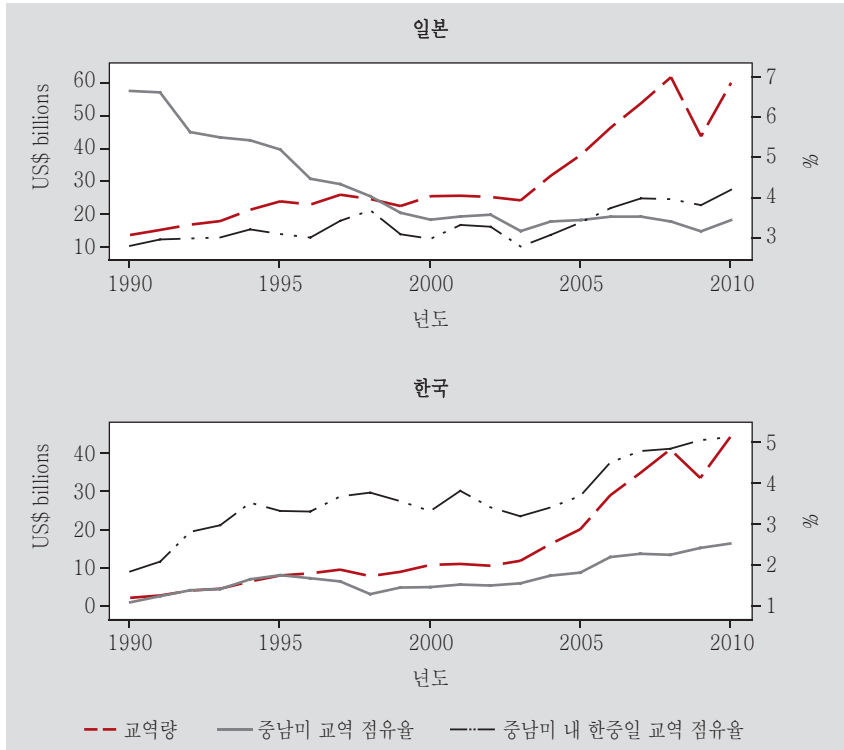


도표 1/
중남미 대 아시아
양자간 무역
1990-2010

¹ 본문에서 '동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칭한다.

(다음장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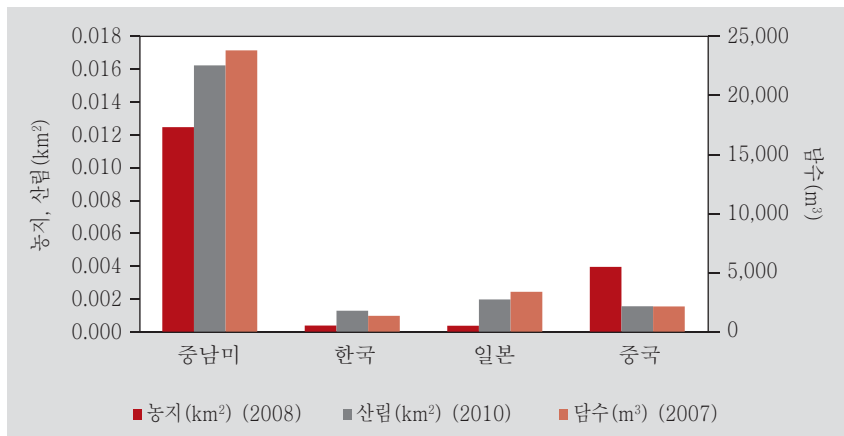
도표 1/
중남미 대 아시아
양자간 무역
1990-2010
(계속)



출처: IDB-INT, COMTRADE, ECLAC, OECD, 한국재정경제부 자료 참조

가격에 변동이 일기도 하였으며 한국과 중남미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에서는 한국산 제조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한국에서 또한 중남미의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도표 2/
1인당 천연자원양:
한국, 일본, 중국 및
중남미



출처: WDI.

보다 균형적이고 다양한 관계를 지향하다

현 재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호무역은 경제규모와 천연자원 보유량에 따라 일부 중남미 지역과 특정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집중화는 중남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입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남미는 과거 20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2010년, 25%)을 보였는데, 상위 5개의 수출국 중 3 군데는 남미 원뿔꼴 지역² 국가들로서, 총 수출량 중 83%를 차지하고 있다(표1 참조). 또한 상위 10개의 상품을 살펴보면 대부분 천연자원,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총 수출량의 60% 정도에 달한다(표2 참조). 그러나 중남미의 대 중국 집중화 현상은 각각 84%, 78%로 더욱 심각한 편이다. 중남미의 대 중국 수출 시장집중도 비율을 나타낸 아래의 도표 3을 보면 이러한 집중화 현상이 잘 드러나 있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남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집중도는 중국에 비해서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집중화 양상은 전통적으로 중남미가 유럽과 미국으로 다각화된 수출을 하던 모습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	점유율 (%)
브라질	30.2
칠레	29.2
멕시코	9.5
페루	8.1
아르헨티나	5.9

출처: IDB/INT using data from MOFAT 2011
* 년은 1월-8월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함

표 1/
중남미 대 한국 상위 5개 수출국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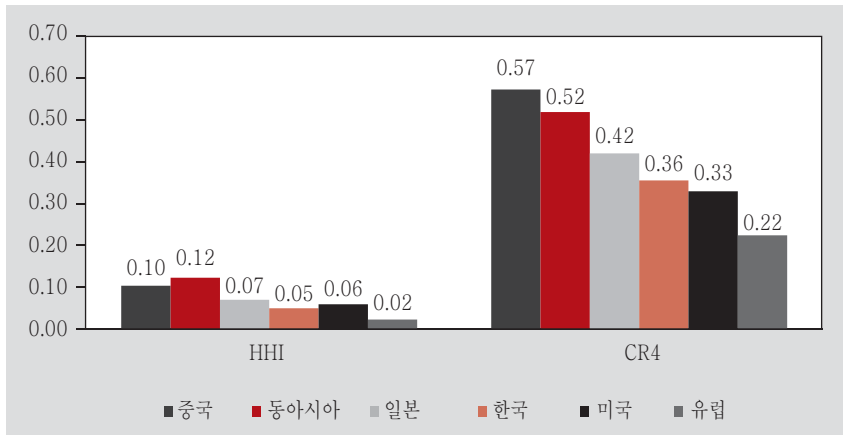
상품 (HS2002, 6 digits)	점유율 (%)	누적점유율 (%)
구리광석 및 구리농축물	13.4	13.4
정원동: 전기동 및 전기동류	10.6	24.0
철광석 및 철농축물	6.6	30.6
반가공 철제품 또는 비합금강 제품	4.9	35.5
유조선	4.4	39.9
깃묵, 공기름 추출 고체 잔여물	4.1	44.0
아연광석 및 아연농축물	4.0	48.0
철광석 및 철농축물 (집괴)	3.3	51.4
천연가스(액화)	3.2	54.5
여객선 및 화물선	3.1	57.6

출처: IDB/INT using COMTRADE data.

표 2/
중남미 대 한국 상위 10개 수출 품목
2008-2009

² 원뿔꼴 지역 (Southern Corn):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로 이뤄지는 지역을 지칭

도표 3/
중남미 수출 집중화
CR4 와 HHI,
2008-2009



출처: IDB/INT using COMTRAD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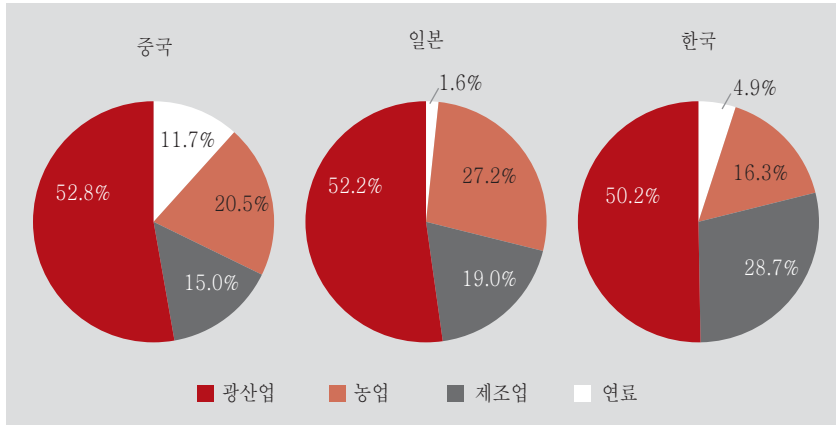
참고: HHI는 특정 산업 또는 시장에서 시장구조가 경쟁적인지 독점적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0(다양)-1(집중) 사이의 숫자로 나타낸다. CR4는 상위 수출국 1-4위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수치이다.

중남미의 대 한국 수출은 상품과 분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한 편이다. 도표 4에도 나타나듯이 한국의 원료를 기반으로 한 제품에 대한 집중도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제조품이 수출량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조품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지난 20년간 연 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양자간 수입의 경우(2010년, 35% 기록), 중남미 지역의 상위 5개 수입국의 점유율(67%)은 상위 5개 수출국의 점유율보다 낮다. 수입국 중에는 미국 시장과의 접근성과 국내 시장 크기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가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제품 집중도의 정도는 수출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대부분 제조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수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위에 언급된 모든 도표들을 종합해 볼 때, 중남미와 한국간의 무역은 중남미 대 중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한 양상을 띄고있지만, 수출의 다양성 면에서 만큼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비록 작은 차이일 수도 있으나, 수출 품목이 천연자원에 과도하게 집중화 되어있는 중남미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추후 중남미-아시아 간에 좀 더 다각화된 무역 패턴을 형성하기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도표 5에서 보면 농업과 광산업에 한정되고 집중하면서 제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한국간에 불균형적인 무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양 지역간의 전형적인 무역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말하는 ‘원자재를



출처: IDB/INT, COMTRADE 데이터 참조. 한국은 2008-2009년 자료 사용

도표 4/

중남미 대 한중일 수출
분야 분포도,
2008-2010

국가	점유율 (%)
멕시코	26.4
브라질	21.1
페루	8.9
칠레	8.7
콜롬비아	2.4

출처: IDB/INT using data from MOFAT Korea. 2011년은 1월-8월 자료만 포함 됨. 조세피난처 제외.

표 3/

중남미 대 한국 상위 5
개 수입국 2007-2011

제품 (HS2002, 6-digit)	점유율 (%)	누적점유율 (%)
전송장치, 레이더장치 또는 TV 수신기 부품	19.0	19.0
모놀리식 집적회로	7.0	26.0
불꽃점화엔진 차량(>=1500cc)	6.9	32.9
액정 장치	6.5	39.4
석유오일, 역청탄, 광물추출 오일(라이트 오일)	5.8	45.3
수신장치를 통합한 전송장치	3.1	48.3
유선전화 또는 유선 전신을 위한 전기장치 부품	2.8	51.1
불꽃점화엔진 차량(<1500cc)	1.5	52.6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의 부품 및 액세서리	1.3	54.0
석유오일, 역청탄, 광물추출 오일(기타)	1.3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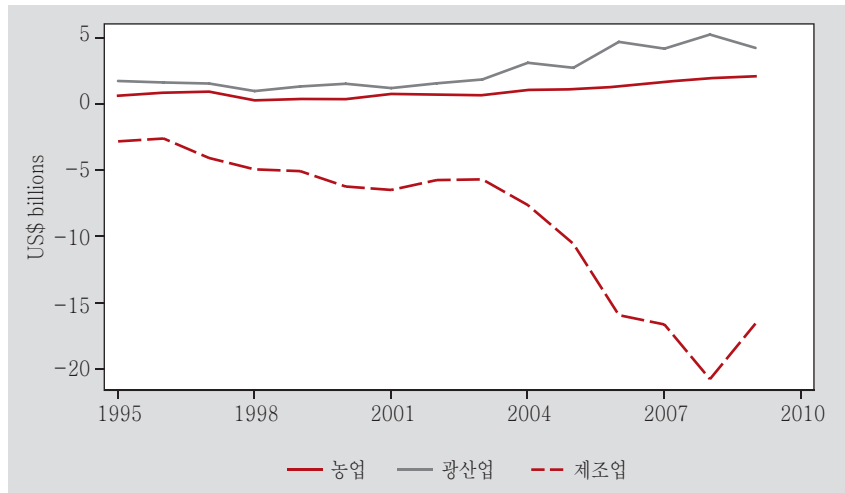
출처: IDB/INT using COMTRADE data.

표 4/

중남미 대 한국 상위
10개 수입 품목
2008-2009

도표 5/

분야별 중남미 대 한국
순수출액, 199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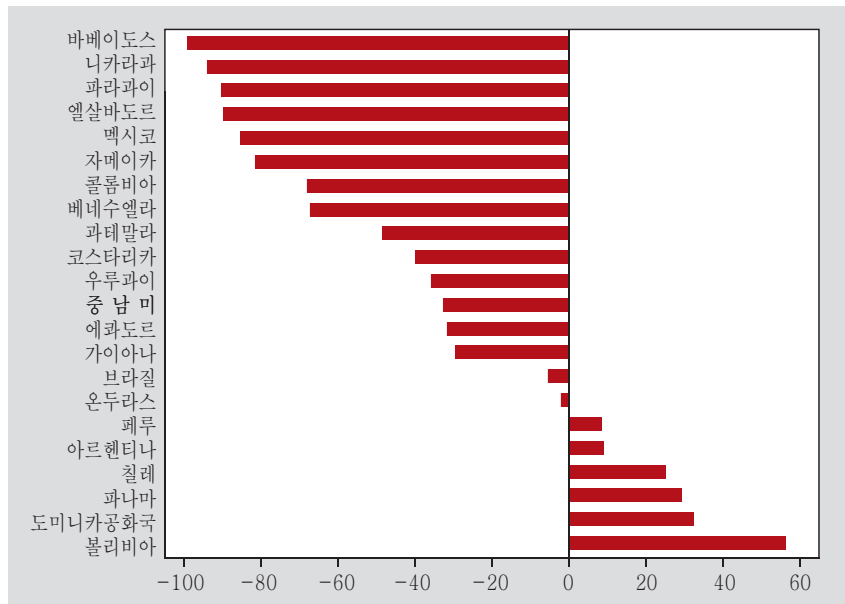


출처: IDB-INT, COMTRADE 데이터 참조

주고 제조품을 받는' 형식 (commodity-for-manufacturing)의 교역으로 인해 무역 불균형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졌다(도표 6 참조). 최근 다소 불안한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보여주듯이, 무역 불균형이 커지고 늘어날수록 정치·경제적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에는 두 경제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도표 6/

총무역 점유율로 본 중
남미 누적 무역수지
2000-2009 (%)



출처: IDB/INT using COMTRADE data.

여전히 존재하는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논의

80년대 초반과 90년대 초반 한국과 중남미에 시작된 무역자유화가 현재의 한-중남미 교역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기 어렵다. 한국은 80년대 초반 평균 25%에 달했던 수입 관세율을 현재의 11.2%³ 수준까지 낮추는 등 비관세장벽(NTB)을 완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같은 기간동안 중남미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80년대 초반 40%에서 9% 이하로 떨어지고 동기간 동안 성행했던 비관세장벽 또한 사실상 제거되었다. 그러나 핵심 장애물들은 여전히 잔존한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시장에 중남미 국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가 적지 않은 편이며, 특히 농수산물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가공단계를 많이 거친 제품일수록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등 공정 단계에 따른 관세 상승폭도 높아서, 원자재 또는 원작물을 가공하여 수출하기도 힘든 구조이다(도표 7 참조). 중남미로 수출을 하는 한국 업체들은 몇몇 중남미 시장에서 두자리수의 관세를 부담하는 등, 비슷한 문제점은 중남미 시장에도 존재한다(표 6 참조).

분야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총합계	12.54	7.82	10.78	8.24	6.69
농업	14.27	8.06	14.09	26.83	10.77
제조업	7.43	7.83	5.48	7.33	9.75
광산업	5.79	3.96	0.08	2.28	2.67

출처: BID-INT using data from TRAINS and COMTRADE data.

참고: 평균치는 중남미 대 세계 여러 국가로의 수출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2009년 자료

표 5/
중남미의 평균 수출
관세율

분야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총합계	10.38	12.33	9.58	5.95	2.44
농업	13.44	14.02	15.64	13.16	1.41
제조업	10.38	12.42	9.61	5.93	2.47
광산업	10.87	9.15	9.95	5.95	2.29

출처: BID-INT using data from TRAINS and COMTRAD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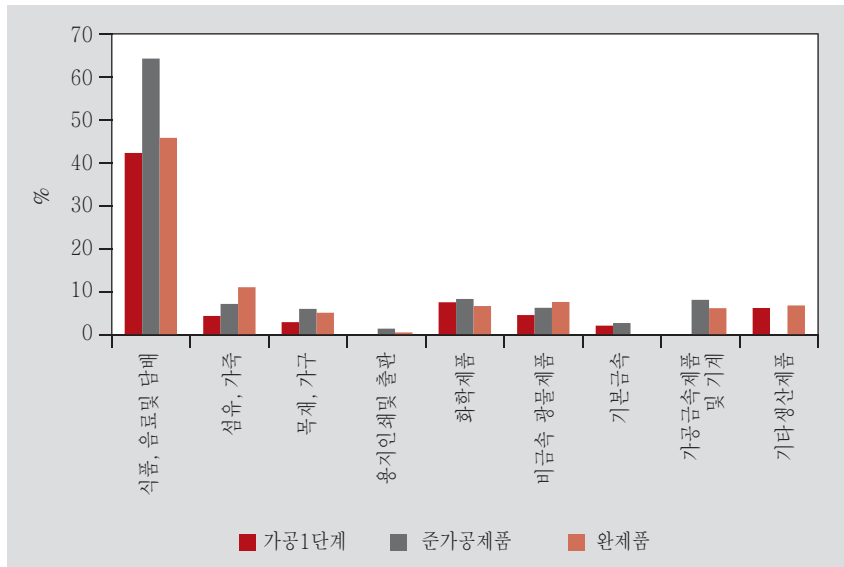
참고: 평균치는 중남미 대 세계 여러 국가로의 수출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2009년 자료

표 6/
중남미의 대 한국 평균
수입 관세율

³ Mesquita Moreira, *Industrialization, Trade and Market Failures*. Macmillan, 1995 and Korea's Trade Policy Review and WTO tariff data.

도표 7/

한국경사관세-ISIC
(국제표준산업분류)
2digit 기준, 2008



출처: Korea Trade Policy Review 2008.

높은 관세에는 비관세장벽(NTBs)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한국이 중남미 농산물 수출업체에 저율관세할당(TRQs)을 대입하는 것으로서, 쿼터 내(in-quota)에 속하는 물품에 한하여 0%–45%의 관세율을 부과하며 쿼터 외(off-quota)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 750%의 관세를 적용한다(표 7 참조).⁴

중남미 중 특히 Mercosur 국가들의 경우, 아시아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비자동 수입허가절차(non-automatic import licenses), 준거가격(reference prices) 그리고 아시아 수출국가에 대한 차별 관세(discriminatory taxes) 적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반덤핑 규제조치(anti-dumping measures) 증가 등에 우려도 높다. 다행히 한국은 이러한 조치와는 연관성이 적은 편이다. 표8의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규제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에 대한 반덤핑규제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십년간 줄어드는 추세이다.

⁴ 저율관세할당(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Korea Trade Policy Review, 2008, WTO 참조.

제품	쿼터 (tons)	평균 쿼터 내 관세	평균 쿼터 외 관세
살아있는 동물 ¹	466,051	0.0	58.9
유제품, 계란, 꿀 및 식용제품	406,782	28.6	105.0
동물성 식품	9,968	6.5	21.8
생목 및 기타 식물	1,983,500	8.0	18.0
식용채소	282,213	29.1	455.1
식용과일과 견과류, 감귤/멜론류	70,370	46.4	311.0
커피, 차, 마테차, 향신료	16,246	40.0	388.9
곡물	93,924	8.2	397.7
밀당산업 제품	278,150	9.6	431.2
오일 씨앗/기타 곡물 / 약초/ 쥬	1,299,490	18.5	496.8
랙, 고무, 합성수지 등	170	20.0	754.3
동식물 유지, 오일, 왁스	668	40.0	630.0
설탕 및 설탕과자	18,806	20.0	114.0
야채, 과일, 견과류 등의 제품	4,907	40.0	63.9
기타 식용제품	114	20.0	754.3
음료, 증류주 및 식초 ²	10,333,800	30.0	270.0
식품 산업 잔여물, 동물 사료	52,868	4.7	49.0
오일, 레시노이드, 향수, 화장품 또는 욕실제품	57	20.0	754.3
단백질 제품, 녹말, 접착제, 효소	456,920	8.0	360.4
실크, 원사 및 직물 제품	10,159	6.8	51.1

출처: Trade Policy Review Korea 2008, WTO.

¹ 단위는 마리(首) ² 단위는 리터(litre)

표 7/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저율관세할당(TRQs)

아르헨티나	1995 (1), 1998 (1), 1999 (2), 2000 (1), 2001 (3), 2002 (1), 2004(2)
브라질	1993 (1), 2000(2), 2001 (1), 2004 (1), 2007 (1), 2010 (3)
칠레	2000 (3)
콜롬비아	1995 (1), 1998 (1), 2001 (1)
멕시코	1992 (3), 1993 (4), 1999 (1), 2000 (1)
페루	1994 (1), 1995 (1)

출처: World Bank Global Anti-dumping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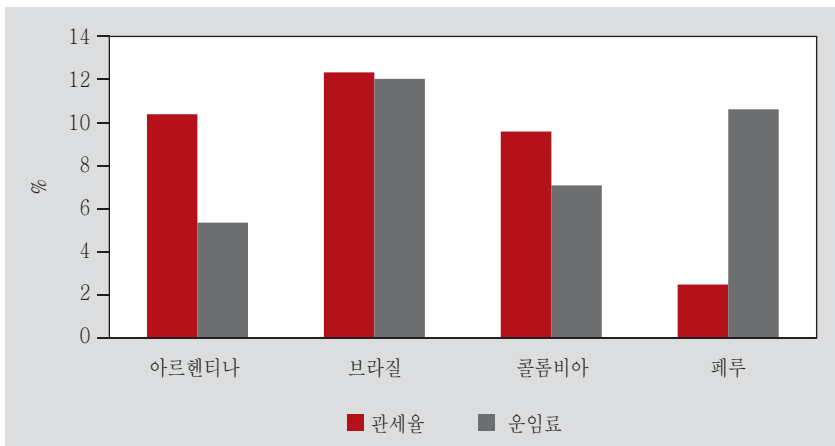
표 8/

중남미의 대 한국
반덤핑규제 조사 년도
및 회수

운송 비용

중남미에서 부담하는 운송비용은 무역자유화, 기반시설의 약화, 수출상품의 특성 등으로 인해 기존의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이 있던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다⁵.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간의 교역에 있어서 운송비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단 지리적으로 멀리 자리하고 있는데다 중남미에서 수출하는 품목 중에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천연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IF)의 상당한 부분이 운송 비용으로 책정되어진다.

현재로서는 양 지역간의 쌍방 교역 관계를 위한 정확한 운송비용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중남미 국가의 한국에서의 수입 운송 비용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표 8참조),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한국 물품의 중가운임(ad-valorem freight rates, 화물운임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값)은 대부분 관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게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INT-BID using COMTRADE and INTrade data. Averages are weighted using Korea's trade data.

도표 8/

중남미의 대한국수입관세 및 중가운임지출
2009

⁵ Mesquita Moreira, Mauricio; Christian Volpe and Juan Blyde: *Unclogging the Arteries: the impact of transport costs on Latin American trade*. IDB and Harvard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2008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이니셔티브

한국과 중남미는 최근 5년간, 앞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칠레 FTA (2004년), 한-페루 FTA(2011년) 등을 맺는 등 다각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표 9는 제품,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한-칠레 자유화 일정에 대한 주요 통계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요소도 있다. 한국은 농수산물 분야의 경우 관세 철폐를 상품의 7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15.6%만이 발효 즉시 면세상태가 된다. 이에 반해 칠레는 제조품목의 관세를 점차적으로 99.8%까지 철폐하는 데에 동의 하였으나, 발효 첫 해에 면세되는 상품은 그 중 30.6%이며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들은 제외되어 있다.⁶

아직까지 한-칠레 FTA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협정이 맺어진 이후 양국간의 교역량은 연평균 22.3%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칠레가 세계 다른 나라와 교역하는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도(한국 10.6%, 칠레 15.2%) 눈에 띄는 성장세라고 할 수 있다. 칠레의 수출품목의 90%이상은 구리, 광석 광제, 목재 펄프, 유기화학, 육류에 편중되어 있으며, 한국의 수출품목은 대부분 자동차, 광물 연료, 전기제품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표 9/
한-칠레 관세철폐계획

수여국	수혜국	관세 라인	협정 후 경과 연수			
			5	10	15	20
한국	칠레	11,322	93.0	96.0	96.0	96.1
칠레	한국	7,957	75.5	94.8	98.5	98.5

출처: INTrade, BID.

한-페루 FTA 또한 칠레와 맺은 협정과 유사한 편으로 제품,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등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본 협정하에 대부분의 제품들은 향후 10년간 점차적으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것이나, 쌀, 양파, 마늘을 포함한 백여개의 농작물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은 광물, 타이어, 커피, 설탕, 자전거 등을 비롯한 87%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를 할 것이며 페루 또한 TV, 대형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69%의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한다.⁷ 한-페루의 경우 협정이 발효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에(2011년 8월 발효) 그 효과를 논하기에는

⁶ Inkyo Cheong and Jungran Cho. *Journal of Korea Trade* Vol. 13, No. 2, May 2009, 109-126.

⁷ Arirang News Korea, 08/01/2011. http://www.arirang.co.kr/News/News_View.asp?code=Ne2&nseq=118738

시기상조이나 일각에서는 페루 대 한국 수출은 15%, 한국 대 페루 수출은 27%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⁸

이러한 협상은 그 중요성이 커져 현재보다 더 개선된 방향으로 이끌고자하는 정치적인 관심도 높지만 아직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성 때문에, 현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는 다소 역부족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상중에 있는 한-멕시코, 한-콜롬비아 FTA가 진전을 보이고, 특히 한-MERCOSUR TA, 한-중미와의 FTA를 위한 예비연구가 종료된다면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성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은 협상에서 발효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국가 이니셔티브가 굳이 FTA에 한정되어 만들어 질 필요는 없다.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운송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훨씬 신속히 시행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득을 거둘 수도 있다. 세관협력이나 운송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환경 변경 등과 같은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⁸ "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 Joint Feasibility Study." May 2008. Available at: <http://www.acuerdoscomerciales.gob.pe>

무역과 투자가 함께하는 한국의 교역 형태

최 근 보이고 있는 한국과 중남미간 교역활성화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상당한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까지 중남미와의 교역량은 한국에 비해 무려 다섯배나 많게 나타났으나 그에 반해 FDI는 2000년대 후반에야 시작되었으며 한국과 비교했을 때에 그 규모도 상당히 적다(도표 9 참조). 이렇게 대 중남미 투자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총 투자액은 총 51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투자액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세배에 가까운 금액이다(도표 10 참조).

무역 패턴과 비슷하게, 한국의 FDI 유입은 중국에 비해 지리적인 집중화가 적은 편이다. FDI 부분에서도 원뿔꼴 지역이 투자 유입지의 상위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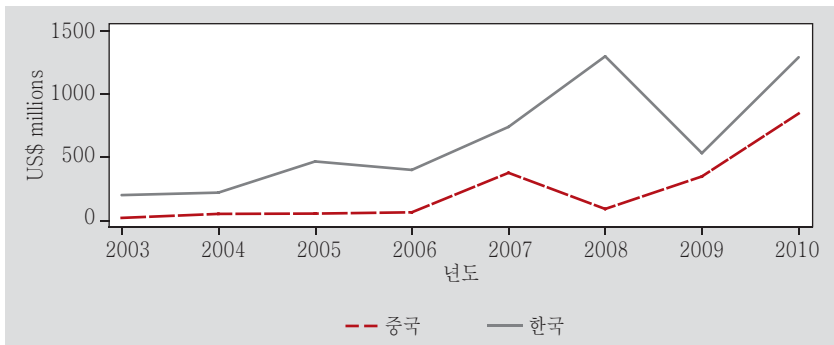


도표 9/
중남미 내 한국과 중국
FDI 유입액,
2003-2010

출처: IDB(한국수출입은행, 중국상무부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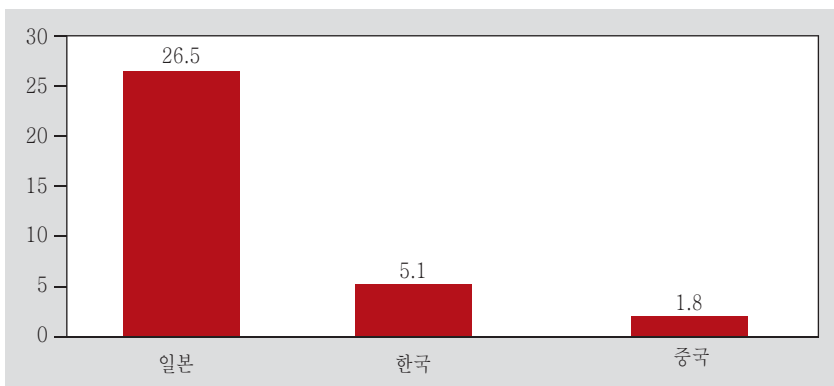


도표 10/
중남미로의 한국, 중국,
일본 FDI 누적유입액
2003-2010.
US\$ billion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Jetro, 중국상무부자료를기반으로한IDB-INT 데이터

지하고 있는데 브라질(거의 과반수 가까운 양이 브라질로 유입됨)을 비롯해 페루와 콜롬비아가 이에 속한다. 반면, 무역부분에 특히 두각을 나타냈던 멕시코는 투자부문에서는 브라질에 이은 2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과테말라나 온두라스와 같은 중미 국가들도 상위 10개국에 속해있다. 중남미로의 총 FDI 유입량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10년에는 1.1%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조세 피난처(택스헤이븐)를 제외하고 한국 FDI 유출량의 평균 5% 이상이 중남미를 향한 것은 한국에 있어 중남미가 중요하고 의미있는 교역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FDI 중 대부분은 광산업에 투자되었는데 그 양은 지난 십년간 약 36%에 달하였으며 뒤를 이어 제조업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지만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의 투자 양상은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방식보다는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편인데, 한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지역 분포도가 다른 이유도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별 분석 또한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대페루 투자의 95% 이상이 광산업에 집중되었지만, 대브라질과 대멕시코의 경우 제조업이 각각 21%와 60%로 좀 더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양 지역간에 좀 더 균형잡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⁹

Box 1/ 현대차, 브라질 공장 착공 브릭스(BRICS) 전 국가 현지생산체제 구축

올해 초, 한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는 브라질 상파울루(Sao Paulo) 州 빠라시카바(Piracicaba) 市에 현대차 브라질 공장 설립을 위한 착공을 시작하였다. 현대차의 남미지역 첫 번째 완성차 공장이 될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총 6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다양한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주/시정부는 공장부지 및 부지정지 무상제공, 일부 세제 혜택, 도로 등 인프라 지원을 현대차에 제공했다.

브라질 공장은 전체 약 139만㎡의 부지에 완성차 생산설비를 갖추게 되며, 총 건평 약 6.9만㎡의 규모로 지어진다.

2012년 11월부터 양산이 시작되며 특히 브라질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은 사탕수수 등에서 정제하는 바이오 에탄올과 가솔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혼합연료(플렉스퓨얼, Flex-Fuel)’ 차량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혼합연료 차량의 판매가 약 90%를 차지하는 브라질 자동차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브라질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를 포함해 총 8개의 부품업체들이 동반 진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현대차는 1,900여명의 직접고용과 함께 협력업체의 고용인원 1,900여명을 포함, 총 3,8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⁹ 한국수출입은행.

출처: 현대자동차 홍보사이트(<http://pr.hyundai.com>)

표 10/
한국의 대 중남미
FDI 유출 흐름,
2000-2010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브라질	1.28	5.26	6.66	0.00	0.23	0.00	5.09	4.13	7.24	2.73	2.03
멕시코	0.00	0.00	0.00	0.00	3.44	0.00	0.00	3.00	0.00	0.00	0.00
페루	10.20	1.36	4.33	3.92	0.65	0.97	0.15	0.00	0.31	3.87	9.86
콜롬비아	28.51	18.82	3.07	6.98	19.89	174.66	110.20	264.79	635.09	131.53	1051.15
칠레	1.00	0.00	0.00	5.50	11.51	0.60	4.31	26.30	2.63	6.05	18.93
파테말라	11.00	0.00	0.00	0.10	0.01	0.49	4.86	21.93	0.02	13.08	26.31
온두라스	0.00	0.00	0.25	0.27	5.80	0.12	3.63	1.75	0.00	1.13	0.00
푸에르토리코	3.23	0.49	5.00	0.20	1.70	1.35	7.29	5.30	0.00	2.00	5.00
볼리비아	10.45	2.01	4.50	9.82	3.30	14.27	0.11	17.10	5.70	4.04	0.60
아르헨티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	6.13	3.20
니카라과	0.51	8.85	18.48	10.20	5.10	6.77	9.06	0.00	2.00	6.73	0.00
엘살바도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2	0.01
아이티	21.32	17.87	45.70	21.14	25.34	71.05	53.08	119.98	304.98	55.15	64.01
코스타리카	0.81	0.01	0.50	2.68	7.76	4.50	3.46	1.03	0.60	10.05	2.65
우루과이	0.00	0.00	0.60	0.86	0.62	0.12	0.28	0.00	0.00	0.00	0.00
벨리즈	25.02	16.64	86.92	113.72	76.80	33.32	61.64	94.10	82.15	40.14	48.27
파라과이	0.00	0.00	48.4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베네수엘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9	4.23	2.97
자메이카	0.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4	0.00
중남미	113.66	88.59	229.34	196.41	216.06	462.87	395.95	736.64	1295.70	528.67	1287.89

(다음장에 계속)

표 10/
한국의 대 중남
미 FDI 유출 흐름,
2000-2010
(계속)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중남미 총유입	0.1	0.1	0.4	0.4	0.3	0.6	0.5	0.6	1.0	0.7	1.1
% 한국 총유출	2.7	4.4	7.9	4.9	3.8	7.3	3.5	3.7	6.4	3.1	6.7
% 중남미 총유출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중남미 총액에서 조세피난처는 제외

Box 2/ 삼성전자 - 멕시코

삼성전자는 1988년 멕시코 티후아나에 삼성전자 멕시코 생산법인(SAMEX)을, 1995년에 멕시코 판매법인을 설립해 현지에서 TV, 휴대폰, 컬러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 제품 대부분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후 1996년에는 총 2억달러를 투자하여 티후아나 엘폴로리도 공단 내에 신공장을 설립하였고 이는 2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기존 이 지역의 ‘마킬라도라’와 달리 이 수직통합 구조의 공장은 그 지역 원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공단이 생기며 창출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이 지역에 정착한 한국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량의 약 75%는 NAFTA를 통한 미국시장을 위한 것이었다. 2011년 5월,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은 멕시코 생산단지 확장을 위하여 7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03에는 멕시코시티에서 200여km 떨어진 케레타로주 주도 케레타로시에 연간 50만대 생산이 가능한 삼성전자 백색가전 공장을 열기도 하였다. 이러한 확장은 비단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시장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은 추가적으로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에 총 1억 8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3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산되었다.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은 멕시코시티에 본사가 있으며 베라크루즈, 과달라하라, 쿨리칸과 몬테레이에 지사를, 티후아나에 생산단지를, 그리고 케레타로에 모니터와 TV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총 6천명 이상의 직원이 속해있다.

출처: 삼성전자 홈페이지 (<http://www.samsung.com/us/news>) 및 각종 기사

이렇게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더욱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 중남미의 대 한국 투자는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지난 10년간 중남미가 한국에 투자한 액수는 약 4천7백만 달러 정도로,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총 FDI 중 0.05%에 불과한 것이며 중남미의 해외투자유출량 중에서도 0.06%에 그치는 액수이다. 표 11을 보면 조세피난처를 제외한 가장 큰 투자국은 우루과이, 칠레, 브라질 순임을 알 수 있다. 중남미의 낮은 투자 경향은 중남미 국가들이 역동적인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다양한 수출 기회를 개발하는 데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국가	(백만 US\$)
우루과이	21.10
칠레	8.70
브라질	4.10
벨리즈	2.10
베네수엘라	1.50
총액	46.80
중남미 FDI유출액 중 점유율	0.02
한국 FDI 유입액 중 점유율	0.04

출처: INT-IDB using data from OECDstat. 조세피난처 데이터는 총액에서 제외됨

표 11/

중남미의 대 한국 FDI
누적 유출액,
2000-2009

협력의 중요성

일 반적인 다른 통합과정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남미 간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또한 여러 기술적·정치적 협력 이니셔티브가 수반되어왔다. 남남협력¹⁰과 명맥을 같이 하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비롯하여 행사행정까지 약 20여개가 넘는 영역을 다루고 있다. (테이블 12 참조)

그러나 양 지역간에 서로 축적된 경험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다양하고 활발한 기회가 자칫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수의 엘리트 교육, 정보기술, 교통 인프라, 클린에너지 기술의 성공에서의 교훈을 전수하고, 중남미의 경우에는 농업, 광산업, 항공, 바이오 연료 등의 성공 사례를 한국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두 경제간의 협력은 양측간 교역에 집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의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세관절차나 위생검역기준 등의 분야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편들은 무역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FTA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양자간 협력은 강력한 제도적 구조에 의해 개선될 수도 있다. 양해각서(MOU)나 각종 조약의 체결은 협력을 위한 제도적 발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다. 단 이러한 방편들은 보통 의회승인이 필요없어 좀 더 자유롭게 다방면에 걸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반면,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예컨대 자금의 출처에 관한 내용)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평가에 관한 것이다.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에는 상당한 협상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의 결과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양적 정보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우리가 보통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이러한 협상을 시도한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소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인게 현실이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국가가 부족한 자원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¹⁰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개발도상국간의 경제기술협력. 당장 적용할 수 없는 선진국의 자본이나 지식집약적인 기술보다는 개도국의 실정에 맞는 노동집약적 기술을 목표로 한 개도국간의 협력

표 12/
한-중남미 상호협력
및 협력역인니서지비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파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문화	X			X	X	X	X	X	X	X	X	X	X	X
영사업무(외교, 업무인문비자)	X	X	X	X	X	X	X	X	X	X	X	X	X	
영사업무(일반비자)	X			X	X		X	X	X	X	X	X	X	
투자증진 및 보호	X		X	X	X			X	X	X	X	X	X	X
무역	X	X		X	X		X	X	X	X	X	X		
기술 및 과학	X	X		X	X	X	X	X	X		X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X					X				X		X	X	X
항공교통	X			X	X			X	X					
법인본국송환	X		X	X	X					X				
경제		X		X	X	X		X						
ADT				X				X						
세관				X				X						
봉사						X			X					
관광	X				X			X						
어업					X	X								
경제·사회 개발								X						
FTA				X	X									

(다음장에 계속)

표 12/ 한-중남미 상호협력 및 협력이니셔티브 (계속)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	
멕시코	X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X
칠레	X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X
형사행정	X
핵에너지	X
운전면허	X
전기통신	X
남극지역	X
에너지와 미태열자원	X
조세	X

출처: 한국외교통상부, 중남미 각국 외교통상부

마무리 하며: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자

한 국과 중남미 간의 무역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양상은 중남미의 교역 상대가 단지 중국에 그치지 않고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기시켜주고 있다. 한국은 중남미 지역과 활발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규모와 자원부존(resource endowments)이 있는 나라이다. 중국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부존의 상호보완성은 이제까지 그래왔듯 최소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양자간 무역과 투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양 지역의 근본적인 경제구조는 한-중남미 관계가 아시아-중남미간의 전통적인 무역 형태를 넘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높은 1인당 소득은 식품과 광산 제품에 가치를 부가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최첨단 기술의 전문화된 산업은 산업내무역(intra-industry)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마찰을 줄이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중남미의 대한국 수출 품목이 여타 아시아 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욱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망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적인 통합정책에도 그들은 있다. 양 지역 교역 관계에 있어 여전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 장애물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점인데, 특히 중남미 농산물 수출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칠레, 한-페루 FTA를 비롯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이미 확실한 정치적 의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중국에는 각종 무역장벽들도 해제될 수 있음을 내제하고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러한 아젠다가 단지 기존 무역장벽과 FTA를 다루는 데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운송비용 등의 주체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와같이 같이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국가와의 교역시에는 그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교역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양자간 투자형태 또한 한-중남미 간의 투자 양상이 전통적인 모델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 중남미와 다른 아시아 국가간의 투자 관계와는 달리 한국과 중남미 간의 투자는 양 지역간의 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천연자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과 분야로 분산된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계의 입장에서 중남미 소비자에 한층 다가서 있다는 이점은 분명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남미의 입장에서, 소위 ‘천연자원 대 완제품’ 교역 모델(commodities-for-machine model)로 굳어져버린 불균형적인 무역으로 인한 긴장감을 완화하고 중남미 내의 다양한 제조업의 기반을 닦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매력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중남미의 투자가 적다는 것은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남미 업체들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기회를 만들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등 일종의 의무를 다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분이다.

물론, 공공정책의 협력강화 노력 없이는 위에서 언급된 한-중남미 관계에서 파생되는 기회를 제대로 잡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힘들다. 이미 양 지역 간에는 충분히 다양하고 많은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만, 단순히 이니셔티브 창안을 넘어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좀 더 구속력이 강하고 잘 문서화 된 협정은 추후 평가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친밀하고 진지한 협력관계는 공공정책의 향상과 지식확산 뿐만 아니라, 양자간 무역과 투자에 또다른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